MINI INTERVIEW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겨울철 보온자재 투입 검토
축사 난방강화로 내병력 높이고 조기출하 유도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경기도의 오리농가들이 요청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AI 취약축종인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겨울철 보온자재 투입 또는 축사 난방강화 등 축사내 온도를 높여 내병력을 높이고 사육오리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정책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오리 정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오리 바이러스 간염 예방약품 지원,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동절기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축사시설현대화, 사료구매 지원, 가금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리바이러스 간염 예방약은 사업비 300만원으로 도내 육용오리·종오리 45,000수에 공급하고 방역선진형 농장은 사업비 10억원(자부담 40%)으로 축산농가 5개소(개소당 최대 5억원)에 농장 내 터널식 소독시설, 전실, 울타리 등 방역시설·장비를 지원하고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53개소(개소당 5천만원)에 26억원 예산으로 CCTV, 방역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은 사업비 3억원에 오리 11만마리를 대상으로 동절기 휴업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확산 방지와 축산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리농가에서는 방역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축사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